

치유농업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실현가능성 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조민영* · 남진보** · 최선경*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are Farming - Focusing on the Employees' Perceptions in Senior Leisure Welfare Facilities -

Cho, Min-Yeong* · Nam, Jinvo** · Choi, Seon-Gyeong*

*Mater Student,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care farming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accordance with the rapidly aging society, by 1)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of employees working in senior leisure welfare facilities, 2) analysing correlation between partnership and feasibility and 3) proposing implications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partnership-based care farming. To address the aim, this study employed 1) a theoretical review of care farming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2) a non-face-to-face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59 employees at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alysed by SPSS 26 statistical softw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 the employees perceived several stakeholders'(e.g. public, community, and private sectors) involvement in the care farming, 2) public sector was the most preferred as generating income; the local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mmunity-the manpower education, and the community-maintenance. 3) Such responsibilities for income generation by private-led and maintenance by community-led maintenance were highly recognised, and 4) interestingly, partnerships-formed particip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mmunity showed a positive and correlation on improving feasi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revitalising care farming these are 1) establishing private sector-centred structure of income generation, 2) building a maintenance system through community-led participation activation, 3) setting integrated management framework to maximise feasibility based on multi-partnership structure. Concluding remark is that it is highly expected to increase the feasibility when financial resources, maintenance systems, and integrated management are well-framed through the partnership-centred approaches to care farming based on sharing responsibility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community sectors.

Key Words: Aging Society, Welfare for the Elderly, Community, Stakeholders, Sharing Responsibility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R1G1A1013266).

Corresponding author: Nam, Jinvo,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Phone: +82-61-450-2364, E-mail: jinvo.nam@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치유농업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1) 치유농업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 조사, 2)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따른 실현가능성 지표의 상관분석, 3) 이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1) 문헌고찰을 통해 치유농업,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이론고찰, 2)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59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설문조사, 3) SPSS 26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 One-way ANOVA, 상관 분석, 교차 분석을 통한 자료 분석이다. 분석 결과, 1)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는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특히, 예산협력 주체로는 공공부문을 가장 선호하였고, 인력교육 협력 주체로는 지방정부, 민간부문, 커뮤니티를 선호하였으며, 유지관리 협력 주체로는 커뮤니티가 가장 선호되었다. 3) 그러나, 주체별 예산책임공유 결과 민간부문 주도 재원마련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유지관리에 있어 커뮤니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민간부문과 커뮤니티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가 실현가능성 향상에 미치는 긍정성과 상관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 민간부문 재원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2) 커뮤니티 주도 참여활성화를 통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3) 실현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다부문(multi-sector) 파트너십 구조 치유농업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즉, 공공부문, 민간부문, 커뮤니티의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재원 마련, 유지관리 체계, 통합운영이 이루어질 때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책임공유

1.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국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 향상, 의료 기술 발달, 생활 수준 향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로 인해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으로 길어짐에 따라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다(임홍수, 2017). 이러한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인 관심을 증가시켰다(김은주, 2012).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한 고령 인구의 우울과 같은 정신·정서적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고독사, 경제력 상실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쟁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희망하는 노후 활동은 취미·여가활동(37.7%)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35.1%), 경로당(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 노인복지관·경로당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주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설계 중심의 양적 수요 증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용자의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질적 요소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차인수, 2012). 더불어, 최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령 인구의 인식이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에서 더 향상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김태영과 심영미, 2020). 결과적으로 고령 인구가 노후 활동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활동 프로그램의 미흡성은 이들에게 부정적 요소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용하는 고령 인구의 부정적 감정 해소 및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는 사회적 지위 변화, 경제 능력 상실, 노인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등이 발생하는 노년기 시기(탁상숙과 이거룡, 2022)를 보내고 있다. 이 시기의 고령 인구는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노인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이지현과 양수진, 2019). 더불어 노년기의 우울 경험은 불안감 상승으로 인해 삶에 대한 의미 저하, 치매 유발, 사회활동 참여 저하 등의 부정적 현상을 보이게 된다(Ownby *et al.*, 2006; Fiske *et al.*, 2009; 전영자 2015; 윤현숙과 염소림, 2017;

탁상숙과 이거룡, 2022). 이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성공적인 관리는 노년기의 변화된 자신의 변화된 삶의 수용,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rikson and Erikson, 1998).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고령 인구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활동 대책 마련을 통해 이들이 우울감 해소를 통한 정서 회복,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고령 인구의 스트레스·우울 및 건강 문제의 증가는 사회·문화·복지 측면에서 원예의 기능을 강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원예 활동은 인간과 식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령 인구에게 치료적 효과를 주는 활동으로써 강조되고 있다(김주현 등, 2016).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원을 함께 조성하고,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치유정원 활동 기회를 제공했을 때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박미옥 등, 2022). 즉, 식물을 활용한 원예 활동은 고령 인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활동 중 농업을 활용한 활동은 노인 세대에게 친숙하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은하, 2021). 이러한 농업을 활용한 치료법은 치유농업이라 불리고 있으며, 치유농업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 효과를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김경미 등, 2013b).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유익한 활동 프로그램 요구성을 충족시키고, 참여자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을 제시하고자 하며, 실제 복지시설의 치유농업 실현가능성(fe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치유농업 실현가능성(fesibility)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현가능성이란 실제 작업(work in practice)을 의미하며, 자원, 사람, 융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Johnson *et al.*, 2014). 이와 같은 범주의 구분은 최근 Nam and Dempsey(2018; 2019; 2020) 등과 같은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남진보와 배현미 2021a; 2021b)와 같은 국내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화윤과 문상호(2020)는 실현가능성의 하부 지표로 재원 및 예산 확보, 행정조직 및 인력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현가능성, 운영능력 등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Colon-Rois(2012)는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실현가능성 지표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파트너십과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은 재원 마련(Ponussamy,

2013; Nam and Dempsey, 2020; 남진보, 2020), 인적자원 확보(Grout and Stevens, 2003; Nam and Dempsey, 2020; 2021), 통합운영(Jamal and Jamroz, 2006; Asif *et al.*, 2013)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치유농업 도입을 위해 참여 주체 특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현가능성 연구는 더욱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치유농업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조사 분석하고, 둘째, 치유농업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따른 실현가능성 지표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2. 이론고찰

1) 치유농업

유럽을 중심으로 농업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치유농업(care farming)은 녹색치유 농업,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본질적인 의미는 농업, 농촌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치유 활동이다(Hassink and van Dijk, 2007; Hine *et al.*, 2008; Sempik *et al.*, 2010; 김경미 등, 2013a). 특히, 치유농업은 개인 농장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지만, 교육·보건·사회와 같이 타 분야 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연계는 참여자와 농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유은하, 202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에 타 분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새로운 농업 네트워크 구축, 농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기회, 이해관계자 수와 유형 분류 체계의 확대 등이 있다. 둘째,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향상 및 지역 경제 향상, 농업·보건·사회·교육 분야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연계 등을 통해 농업 여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치유농업 참여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지역 기관의 연계를 통해 치유농업 운영, 재정적 문제점 보완, 새로운 지역 파트너십 네트워크 형성 등의 효과가 있다.

더불어 치유농업은 해외에서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 활동을 제공하고, 치유농장 네트워크 확대, 농업에 대한 지역사회 및 국가의 긍정적 인식 확대, 경제적인 효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ine, 2008; Bock *et al.*, 2010; Homer, 2011; Elings, 2012; 김경미 등, 2013a).

종합해 보면, 치유농업은 불리는 용어가 다양한 것으로 보이며, 농업을 활용하여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농업 활동이다. 또한,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 기반 치유농업의 원활하고도 활발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 및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최근, 농업 트렌드 변화와 함께 찾아온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는(김경미 등, 2013b)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실현가능한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민·관 파트너십과 치유농업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에서 공공(public)은 중앙·지방정부의 공공부문의 자원을 의미하며, 민간(private)은 시민·기업·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십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졌으며, 민간기업과 중앙·지방정부를 넘어서 공동체 커뮤니티까지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의 영역 구분 없이 자원 투자가 가능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왔다(유영철, 2008).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민·관 파트너십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 알아본 결과, Kouwenhouwen(1993)은 민·관 파트너십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키워드로는 주로 공공, 민간, 지역사회, 자발적인 자원 협력, 상호작용, 거버넌스 구축, 장기적인 계약 등이 나타났다(정철모, 2009; 최덕호, 2009; Farquarson et al., 2011; Robets and Siemiatyki, 2015; Boardman et al., 2015; 유승현, 2015). 더불어 강문수(2011)에 따르면 민·관 협력이란 행정주체(공공)와 민간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파트너십의 형태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수법을 의미하며, 공공과 민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비용 문제 해결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라 하였다. 즉, 민·관 파트너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지역 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민·관 파트너십이란 공공(중앙·지방정부)과 지역 시민, 기업 등과 같은 민간 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자원 협력, 서비스품질 향상 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치유농업에서의 파트너십을 치유농업 선진국을 살펴본 결과, 치유농업의 발전 및 지식기반 확대를 위해 범국가적인 치유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마련 및 프로젝트 수행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은하, 2021). 대표적인 범국가적 치유농업 네트워크는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So Far)가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표 1과 같다.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은 치유농업을 위한 국제적 CoP(Community of Practice) 및 온라인 SNS 운영,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관련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적 농업(So Far)은 유럽연합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한 범국가적 치유농업 전문기관으로 2006년부터 치유농업의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21). 더불어 국외에서는 So Far와 같이 유럽연합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치유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Di Iacova and Pieroni, 2009),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먼저 노르웨이는 농림부 주관 정부부처 통합 위원회 구축,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치유농업 경영자를 위한 국가적 연합, 국가 및 지역 단위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외 치유농업 선진국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기반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

표 1. 국외 대표적인 치유농업 네트워크 유형 및 활동

구분	활동
건강을 위한 농업	- 치유농업을 위한 국제적 커뮤니티의 실행 - 치유농업을 위한 온라인 SNS 운영 -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관련 학술대회 등 개최
사회적 농업	- 유럽연합 위원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한 범국가적 치유농업 전문 기관 - 2006년부터 치유농업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유럽연합 수준, 각 지역 수준의 정책 개발

자료: Farming For Health. <http://farmingforhealth.wordpress.com>; SoFar. <http://sofar.unipi.it>; 농촌진흥청, 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2. 국가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정책

구분	활동
노르웨이	농림부 주관 정부부처 통합 위원회 구축,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을 통한 지원, 품질관리 및 보증제도 운영
네덜란드	치유농업 경영자를 위한 국가적 연합, 국가 및 지역 단위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치유농업 관련 법 제정,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 치유농장주협회 등 품질 관리체계 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벨기에	국가 및 지역 단위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적 지원, 치유농업 관련 법, 규제 마련,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영국	국가치유농업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지역별 치유농업 연계체계와 치유농업 기관 파트너십 구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을 위한 재정 확보
프랑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원예농업, 동물매개치료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 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 지원금 추진,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독일	1980년대 이후 원예치료의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원예치료, 400개 병원과 사회재활센터 보유, 180여 개 커뮤니티, 약 500개 녹색 작업장에 유럽연합 수준 적용,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 지원
이탈리아	지역 수준의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적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 다원적농업·신복지농업·사회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발달, 지역 보건단체·협동단체·농장주·협회 등의 협력체계 및 연구를 지방정부가 지원,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교도소 등 일부 국가지원
일본	농업의 복지/치유기능 주목, 장애인 고용, 취업, 재활, 복지농원 포함 노인복지 중점 국가 농림수산 정책,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 분석

자료: 김미옥, 2019; 유은하, 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미옥, 2019; 유은하, 2021).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다양한 치유농업 선진국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치유농업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기반으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 인적교육을 통한 인력 개발, 치유농업 관련 법·제도 마련, 치유농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도 치유농업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국가 및 지역 더 나아가 지역 시민, 단체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각국의 파트너십 기반 치유농업 운영이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파트너십 기반 네트워크 구축이 국내 치유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상황에 맞는 치유농업 파트너십 연구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되며, 노인의 교양·취미 활동, 사회참여 지원, 친목 도모 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더불어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취미·여가활동이 65세 이상 노인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희망하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등, 2020). 이는 고령 인구가 노후 생활에 접어들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유농업 도입 시 설로써 고령 인구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치유농업 파트너십의 실현가능성은 치유농업 도입 시 관리, 노동력 등 실제 현장에 필요한 현실적 자원에 대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이들을 설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종사자의 인식, 파트너십과 실현가능성과의 상관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확대를 위한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비대면 설문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자료 수집은 목포시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 3개소,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07월 21일부터 2022년 07월 29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총 다섯 가지의 부문으로 나뉘어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별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 필요성(선호도), 책임 공유 필요성, 예산 협력 필요성, 전문 지식 교육협력 필요성, 지속적인 유지관리 협력 필요성으로 구성하여 총 80부의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불성실 응답분을 제외한 59부의 설문지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연구 자료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ver. 2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t*-test, One-way ANOVA 실시하였으며, 변인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론의 고찰은 실현가능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3.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치유농업 실현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현가능성(fesibility)에 대한 연구는 다소 발견되고 있지만, 다소 발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남진보와 배현미, 2021). 그러나, 최근 실현가능성의 정의와 범주를 구분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Johnson *et al.*(2014)은 실현가능성을 실제 작업(work in practice)의 개념으로써 자원, 사람, 융합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작업 현장 또는 현장을 위해 사용되는 현실적 자원(자금), 인력의 기술 및 지식, 통합적인 자원 관리 등을 포함하는 지표라 하였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실현가능성 범주의 구분은 최근 Nam and Dempsey(2018; 2019; 2020) 등 다수의 해외 연구 및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남진보와 배현미, 2021a; 2021b) 등의 국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희윤과 문상호(2020)에 따르면 실현가능성이란 경제적·행정적·기술적·사회적·법적·정치적 가능성으로 세부 지표는 재원 및 예산확보에 대한 가능성, 행정 조직 및 인력지원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Colon-Rios(2012)에 따르면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커뮤니티,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커뮤니티 등의 파트너십을 통

표 3. 실현가능성 지표

구분		주요항목	
실현가능성	실제 작업	자원	자금의 필요성
		인력	기술, 지식 및 경험
		통합	자원 관리

자료: Johnson *et al.*, 2014.

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선호도), 파트너십을 통한 책임공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으며, 실현가능성 지표로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및 예산협력, 관련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및 파트너십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실현가능성 지표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구분하고 분석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수는 총 59명(남성 19명, 여성 40명)이었으며, 나이는 20~29세 9명(15.3%), 30~39세 11명(18.6%), 40~49세 25명(42.4%), 50~59세 12명(20.3%), 60세 이상 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업무는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이 각각 26명(44.1%), 11명(18.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사회복지무요원 등)로 답변한 응답자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담당 업무가 다양하지 않고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경력은 1년 미만 7명(11.9%), 1~3년 미만 20명(33.9%), 3~5년 미만 8명(13.6%), 5~7년 미만 3명(5.1%), 7년 이상 21명(35.6%)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2.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대한 인식 분석

1) 기술통계분석

먼저 인구통계학적 문항 제외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Likert 5점 척도를 통해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여 기술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로, 기관별 참여 필요성 인식은 지방정부(3.97점), 민간기업(3.92점), 지역 커뮤니티(3.90점), 지역 시민(3.83점), 중앙 정부(3.6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앙 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파트너십을 통한 책임 공유 필요성 인식은 지방정부(3.98점), 지역시민과 민간기업(3.85점), 지역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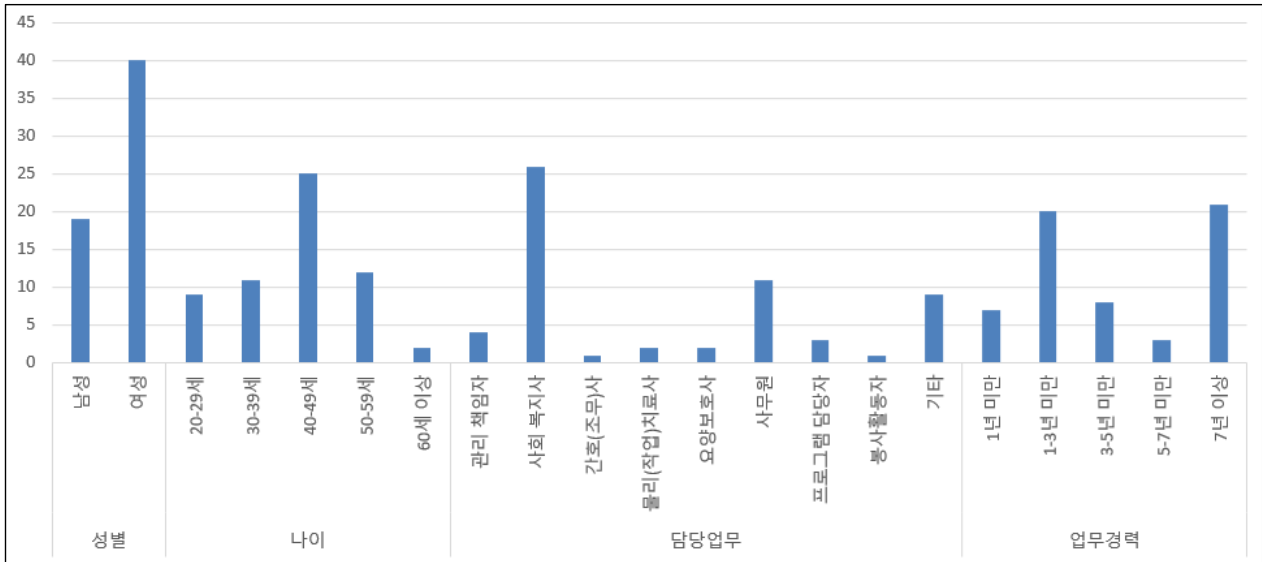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4. 기술통계분석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커뮤니티	지역시민	민간기업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평균값
기관별 참여 필요성	3.63	3.97	3.90	3.83	3.92
책임공유 필요성	3.73	3.98	3.83	3.85	3.85
예산협력 필요성	4.03	4.20	3.93	3.93	3.98
교육협력 필요성	3.95	4.12	4.07	3.90	4.05
유지관리 협력 필요성	3.64	3.92	3.98	3.88	3.90

(3.83점), 중앙 정부(3.73점) 순으로, 이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역 거주민과 지역 내 기관이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보였다. 세 번째로, 파트너십을 통한 예산 협력 필요성 인식은 지방정부(4.20점), 중앙 정부(4.03점),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시민(3.93점), 민간기업(3.98점) 순으로, 예산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게 보이며, 중앙 정부의 점수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역 내 기관보다 중앙 정부의 협력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로,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협력 필요성 인식은 지방정부(4.12점), 지역 커뮤니티(4.07점), 민간기업(4.05점), 중앙 정부(3.95점), 지역 시민(3.90점) 순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치유농업 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커뮤니티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 및 교육 수행을 위한 장소 협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치유농업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협력 필요성 인식은 지역 커뮤니티(3.98점), 지방정부(3.92점), 민간기업(3.90점), 지역 시민(3.88

점), 중앙 정부(3.6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도입 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보이며,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기술 분석 결과로 기관별 참여 필요성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의 점수가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참여가 치유농업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지역 시민의 참여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참여는 시민 개인보다 커뮤니티를 통한 단체의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예산 부분은 지역 파트너십보다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도입 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은 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역 내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구통계학에 따른 파트너십 참여 주체 인식 차이 분석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파트너십 참여 주체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참여 주체 중 민간 기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복지시설, 지역기업, 주변 상가, 민간 농장 등)이 참여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t=2.144$, 유의확률(p)=0.041로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성의 평균값이 3.58점, 여성의 평균값이 4.08점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치유농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기업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분석 결과, 민간기업 외 다른 기관의 참여 필요성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인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나이에 따른 파트너십 참여 주체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통한 책임공유 주체 중 민간 기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책임공유 주체 중 민간기업 참여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20~20세 3.22점, 40~49세 4.12점, $F=3.244$, 유의확률은 0.0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9세와 40~49세의 유의 수준이 0.05 이내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민간기업의 책임 공유 참여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치유농업 실현가능성 변인별 상관분석

첫 번째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파트너십

참여 주체와 치유농업 실현가능성의 각 변인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 책임공유 필요성, 예산협력 필요성, 교육협력 필요성, 유지관리 협력 필요성 항목 모두 서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즉,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협력 필요성-유지관리 협력 필요성($r=0.853$) 그리고 예산협력 필요성-교육협력 필요성($r=0.822$)이 $\pm 0.81 \sim \pm 1.0$ 범위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나머지 항목은 $\pm 0.61 \sim \pm 0.80$ 혹은 $\pm 0.41 \sim \pm 0.60$ 범위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거나 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가 다양한 기관의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치유농업의 유지관리 및 전문 교육 협력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협력, 유지관리 협력, 예산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 커뮤니티, 지역 시민, 민간기업 모두의 참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파트너십 참여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책임공유, 예산협력, 교육협력, 유지관리 협력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교육-유지관리 협력, 예산-교육협력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양한 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와 치유농업의 유지관리 방안, 교육협력, 예산협력 방안 마련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경력에 따른 민간기업의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 인식에 대한 교차 분석한 결과,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종사자 중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1~3년 미만인 종사자 25.4%, 3~5년 미만인 종사자 11.9%, 1년 미만인 종사자 5.1%, 5~7년 미만인 종사자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인별 상관분석 결과

구분	파트너십 주체별 참여 필요성	책임공유 필요성	예산협력 필요성	교육협력 필요성	유지관리 협력 필요성
파트너십 주체별 참여 필요성	1				
책임공유 필요성	0.769**	1			
예산협력 필요성	0.505**	0.645**	1		
교육협력 필요성	0.661**	0.764**	0.822**	1	
유지관리 협력 필요성	0.613**	0.754**	0.757**	0.853**	1

** : 1%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정 결과 유의성 있음.

으며, $p=0.020$ 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시설에서 장기 근무 중인 종사자일수록 민간기업의 파트너십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5년 근무 중인 종사자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 책임공유 필요성, 예산 협력 필요성, 교육협력 필요성, 유지관리 협력 필요성 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지방정부의 교육 협력 필요성($p=0.000$),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예산 협력 필요성($p=0.000$), 지역 커뮤니티의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유지관리 협력 필요성($p=0.000$), 중앙정부의 파트너십 참여 필요성-예산 협력 필요성($p=0.000$)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예산협력 필요성 분석 결과는 배승중 등(2019)에서 도출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하며,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협력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의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교육·예산 협력, 지역 커뮤니티의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유지관리 협력, 중앙정부의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예산협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치유농업 활성화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치유농업 파트너십 참여 주체별 실현가능성 지표의 상관분석

치유농업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따라 실현가능성 변인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Pearson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이용한 치유농업 파트너십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지역 시민, 지역 커뮤니티를 포함한 커뮤니티부문, 지역기업·주변 상가·민간 농장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였다(표 6 참조).

민간부문 예산과 민간부문 인력교육($r=1.000$), 공공부문 예산과 공공부문 인력교육($r=0.925$)이 $\pm 0.81 \sim \pm 1.0$ 범위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참여와 공공부문 책임공유($r=0.807$), 공공부문 책임공유와 공공부문 인력교육($r=0.760$), 민간부문 예산과 민간부문 인력교육($r=0.743$), 커뮤니티부문 예산과 민간부문 인력교육($r=0.743$), 커뮤니티부문 예산과 커뮤니티부문 유지관리($r=0.733$), 공공부문 책임공유와 공공부문 예산($r=0.622$) 등은 $\pm 0.61 \sim \pm 0.80$ 범위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뮤니티부문 책

임공유와 공공부문 인력교육($r=0.282$), 커뮤니티부문 참여와 커뮤니티부문 예산($r=0.294$) 등은 $\pm 0.21 \sim \pm 0.40$ 범위로 약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기업·주변 상가·민간 농장 등의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인력교육과 민간부문의 예산과 상관계수가 1.000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민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통한 인력교육 협력에 참여할 때 민간부문의 예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참여가 공공부문 책임, 공공부문 유지관리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공공부문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라는 책임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유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와 더불어 커뮤니티 부문 책임과 커뮤니티부문 인력교육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역 시민과 지역 커뮤니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공유 구조가 조성되어야 함을 도출되었다. 더불어 커뮤니티부문 인력교육과 민간부문 인력교육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부문 인력교육과 커뮤니티부문 유지관리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시민, 지역 커뮤니티의 인력교육 참여가 치유농업 유지관리와 연관되어 치유농업 활성화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5. 시사점 및 고찰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에 있어 참여주체 선호도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차이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의 실현가능성 향상을 위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자원마련확충과 참여인력활성화는 실현가능성의 주요맥락으로, 이에 대한 향상을 위한 시사점 제시는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민간부문 주도 재원마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은하(2021)에 따르면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 1순위는 예산 및 교육시설 확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및 교육시설과 같은 재원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예산 및 재원에 대한 책임은 기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참여주체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주체별 예산 책임공유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공유의식이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예산 및 자원에 대한 책임을 공공부문 스스로가 수반하여야 한다고 나타났으나, 민간부문은 상관분석

표 6. 치유농업 파트너십 실현가능성 지표 상관분석 결과

구분	파트너십 참여			책임공유			예산			인력교육			유지관리		
	공공 부문	커뮤 니티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커뮤 니티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커뮤 니티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커뮤 니티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커뮤 니티	민간 부문
파트너십 참여	공공 부문	1													
	커뮤 니티	0.483**	1												
	민간 부문	0.422**	0.610**	1											
책임 공유	공공 부문	0.807**	0.319*	0.255	1										
	커뮤 니티	0.480**	0.573**	0.485**	0.412**	1									
	민간 부문	0.386**	0.338*	0.622**	0.479**	0.642**	1								
예산	공공 부문	0.552**	0.154	0.171	0.749**	0.308*	0.326*	1							
	커뮤 니티	0.233	0.294*	0.247	0.157	0.459**	0.254	0.333*	1						
	민간 부문	0.314*	0.401**	0.347**	0.368**	0.580**	0.439**	0.528**	0.648**	1					
인력 교육	공공 부문	0.581**	0.136	0.220	0.760**	0.282*	0.354*	0.925**	0.266	0.453**	1				
	커뮤 니티	0.438**	0.588**	0.551**	0.393**	0.661**	0.487**	0.473**	0.551**	0.743**	0.452**	1			
	민간 부문	0.314*	0.410**	0.347*	0.368**	0.580**	0.439**	0.528**	0.648**	1.000**	0.453**	0.743**	1		
유지 관리	공공 부문	0.613**	0.210	0.385**	0.545**	0.578**	0.578**	0.532**	0.579**	0.504**	0.512**	0.480**	0.504**	1	
	커뮤 니티	0.396**	0.345*	0.260	0.403**	0.503**	0.332*	0.440**	0.350*	0.524**	0.498**	0.733**	0.524**	0.341*	1
	민간 부문	0.355*	0.318*	0.462**	0.230	0.626**	0.562**	0.381**	0.557**	0.658**	0.378**	0.729**	0.658**	0.621**	0.647**

*: 1%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정 결과 유의성 있음.
 **: 5%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정 결과 유의성 있음.

에서 공공부문보다 커뮤니티나 민간부문에서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은 민간부문 주도 재원마련 활성화라는 시사점을 전달한다. 민간주도 예산조달은 2021년 United Nations에서 ‘Private Fundraising and Partnerships’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UN, 2021). 이 밖에 다양한 분야 (e.g. 주말농장(남진보, 2021), 공공놀이터(Kreutz *et al.*, 2014), 공원녹지(Dempsey *et al.*, 2016), 공공정원(남진보와 김근호, 2019))에서 민간주도 파트너십을 통한 재원마련 구축이 실현

가능성을 높혀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커뮤니티 주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유지관리 체계구축을 제언한다. 치유농업에 있어서도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유지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 김미옥(2019)에 따르면 치유농업 선진국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치유농업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로까지 연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유농업 종사자 중 관련 교

육을 이수한 종사자는 28.9%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국내 치유농업 사업장 중 치유농업 관련 외부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농장이 56.6%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유은하, 2021). 즉,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력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참여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 커뮤니티, 민간부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나 커뮤니티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유지관리와 커뮤니티의 책임공유 그리고 인력교육에서 강한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관성은 기존 이론고찰에서도 강조하는 바이다. Saders(2003)은 커뮤니티 참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부터 기본개념과 실습까지 교육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pstein(2008)은 커뮤니티 참여는 학교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커뮤니티 주도 유지관리 체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며(남진보, 2021), 공원관리 참여 활성화에 기여(남진보와 김현, 2018), 도시농업의 커뮤니티 참여 상승효과(Dennis and James, 2016), 더 많은 참여자 유도(Hoh *et al.*, 2022)에 기여한다. 이것은 커뮤니티 인력교육을 통한 유지관리 참여가 실현가능성의 주요 요소인 인적자원의 참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현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다부문(multi-sector) 파트너십 구조 치유농업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부문의 기존 기조로서 공공부문 주도 책임은 유효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것은 민간부문과 커뮤니티의 치유농업 파트너십 체계에 있어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성

과 상관성이다. 민간부문 주도 재원마련과 커뮤니티 참여활성화를 통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언급되었다. 그러나, 더하여 본 연구에 따르면 민간부문과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강한 상관성은 참여, 예산, 인력, 교육, 유지관리 참여에서 보여주고 있다. Azadi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다부문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 구조는 녹지운영에 있어서 유지관리, 자체 재정 지원, 사회적으로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형성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공공, 커뮤니티, 민간부문의 다부문 파트너십은 치유농업 예산과 인적 중심, 즉 실현가능성 맥락에서 통합운영을 위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사점은 그림 2와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파트너십의 참여 주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치유농업 파트너십 참여 주체에 따른 실현가능성 지표의 상관분석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치유농업 활성화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십이 어떠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종사자들의 인식 정보를 제공해주며, 그 결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통계분석 결과, 종사자들은 치유농업 파트너십에 있어 중앙 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지역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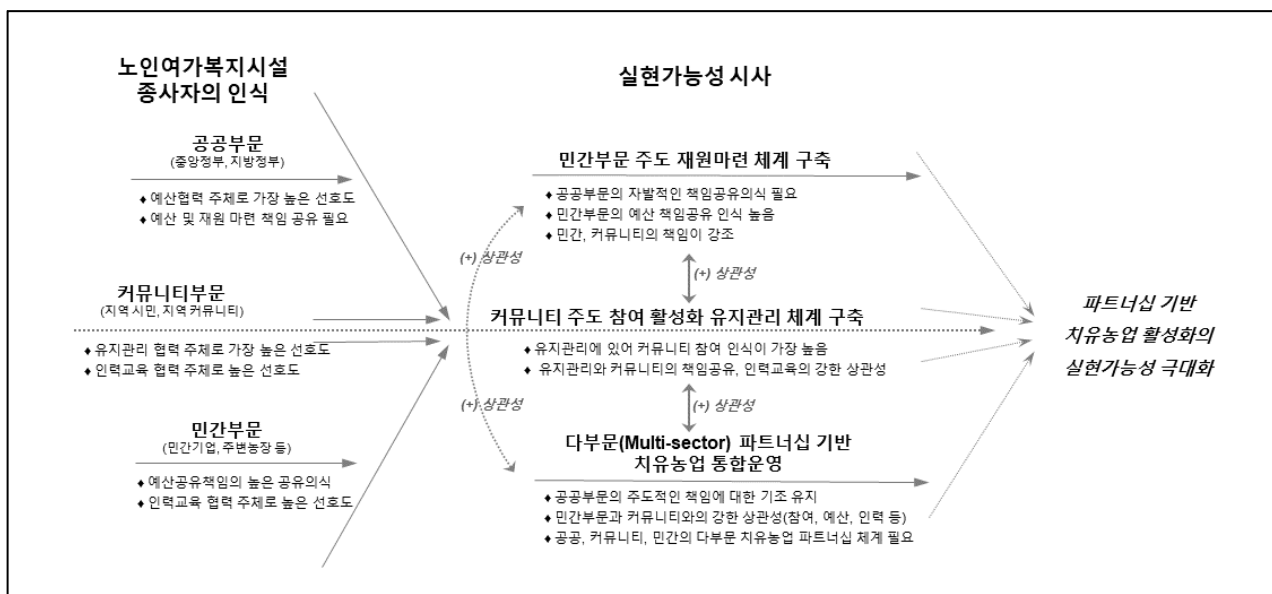


그림 2. 파트너십 기반 치유농업 실현가능성 향상을 위한 도출.

지역 커뮤니티, 민간기업 모두가 참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기관별 참여 필요성은 지방정부의 참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책임공유, 예산협력 또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협력 및 유지관리 협력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지역 커뮤니티 협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유지관리 협력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트너십을 통한 예산협력, 교육협력, 유지관리 협력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교육, 유지관리 협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의 책임공유 주체로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기존 기초와 동일한 결과였지만 지역 시민, 지역 커뮤니티와 같은 커뮤니티부문의 책임공유를 통한 인력교육, 유지관리 참여가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첫째, 민간부문 주도 재원 마련 체계를 구축과 둘째, 커뮤니티 주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유지관리 체계구축 셋째, 실현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다부문 (mult-sector) 파트너십 구조 치유농업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부문, 커뮤니티 부문, 민간부문의 등 다양한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공공부문의 기존 기초로 유효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과 커뮤니티의 파트너십 참여가 실행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성과 상관성이 도출되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더불어 민간부문 주도 재원 마련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과 커뮤니티 사이에서 참여, 예산, 인력, 교육, 유지관리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부문, 민간부문, 커뮤니티의 다부문 파트너십을 통한 통합운영이 이루어질 때 치유농업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치유농업 활성화 실현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치유농업 제공시설이 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만을 조사·분석한 결과로, 치유농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인 농업 종사자, 치유농업사 등 치유농업 전문가의 인식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1. 강문수(201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보고서.
2. 권명진, 김영주(2016) 우울증 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옹북합적 요인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309-316.
3. 김경희, 양건석(2022) 주민참여형 공공가드닝사업 특성 고찰: 조치원읍 새내12길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8(2): 73-83.
4.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이상미(2013a)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 개발 보고서.
5.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이상미(2013b)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4): 909-936.
6. 김미옥(2019) 농업을 활용한 마음치료: 치유농업. *충북 Issue&Trend* 36(36): 10-15.
7. 김은주(2012)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주현, 권성복, 김현주, 최경혜, 이항미(2016) 국내 노인에게 적용한 원예치료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기초간호학회지* 18(3): 153-159.
9. 김태영, 심영미(2020) 노인복지관 서비스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회지* 17(3): 79-100.
10. 남진보(2020) 영국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공원녹지 재원 마련 정책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6(3): 237-244.
11. 남진보(2021) 커뮤니티 주도 시민농장의 특징과 박탈감 지역의 시민농장 활성화 방안: 영국 셰필드 시민농장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49(5): 138-150.
12. 남진보, 김근호(2019) 커뮤니티 주도 미세먼지 저감 방안: 영국 런던 미세먼지 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을 사례로. *휴양 및 경관연구* 13(3): 39-52.
13. 남진보, 김현(2018) 도시공원관리 거버넌스 구축정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차이: 영국 셰필드 지구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7(4): 50-60.
14. 남진보, 배현미(2021a)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내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적용 및 실현 가능성 연구: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도서(섬)학회지* 33(3): 189-209.
15. 남진보, 배현미(2021b)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 분석: 여수 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섬)학회지* 33(3): 173-188.
16.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21) 한국·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서울: 진한엠앤비.
17. 박미옥, 전해영, 서주영, 이성준, 구분화(2022) 비의료적 치유수단으로서 정원활동의 치유 효과.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8(1): 35-42.
18. 유승현(2015) 도시건강에 대한 건강증진 접근방향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40: 20-55.
19. 유영철(2009)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6): 1-31.
20. 유은하(2021) 치유농업 실태조사 및 통계지표 개발 보고서.
21. 윤현숙, 염소림(2017)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지* 72(1): 233-255.
22.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이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3. 이지현, 양수진(2019)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2(4): 151-169.
24. 임홍수(2017)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의 효과.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지* 6(1): 265-282.
25. 전영자(2015) 노인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219-236.
26. 정철모(2009)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십제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2(1): 69-91.
27. 정희윤, 문상호(2020)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실현가능성 우선순

- 위 설정 및 분석: Text-Mining과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융복합지식학회지* 8(4): 99-111.
28. 차인수(2012) 치유정원(healing garden) 측면에서 본 노인요양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도입가능성: 광주광역시의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최덕호(2009)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탁상숙, 이거룡(2022)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식습관의 매개 효과 분석. *한국자연치유학회지* 11(2): 93-99.
 31. Asif, M., C. Searcy, A. Zutshi, and O. M. Fisscher(2013)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approach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56(1): 7-17.
 32. Azadi, H., P. Ho., E. Hafni., K. Zarafshani, and F. Witlox(2011) Multi-stakeholder involvement and urban green space performance.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54(6): 785-811.
 33. Boardman, A. E., C. Greve, and G. A. Hodge(2015) Comparative analyses of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7(5): 441-447.
 34. Colon-Rois, J.(2012) *Weal Constitutionalism: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Question of Constituent Power*. UK: Routledge. p. 222.
 35. Dempsey, N., M. Burton, and R. Duncan(2016)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cross-sector partnership for green space management: the case of Southey Owlerton, Sheffield, UK. *Urban Forestry and Urban Greening* 15: 155-164.
 36. Dennis, M. and P. James(2016) Site-specific factors in the production of local urban ecosystem services: a case study of community-managed green space. *Ecosystem Services* 17(February): 208-216.
 37. Di Iacova, F. and D. O' Connor(2009) *Support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Firenze: ARSIA.
 38. Epstein, J. L.(2008) Improving family and community in secondary school. *Principal Leadership* 8(2):16-22.
 39. Erikson, E. H. and J. M. Erikson.(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NY: W. W. Norton & Company.
 40. Farquharson, E., C. Torres de Mästle, and E. R. Yescombe(2011) *How to Engage with the Private Sector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Emerging Market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41. Fiske, A., J. L. Wetherell, and M. Gatz(2009) Depression in older adult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363-389.
 42. Grout, P. A. and M. Stevens(2003) Financing and managing public services: an assessment. In *CMPO Working Paper Series No. 03/076*. Bristol, UK: University of Bristol.
 43. Hassink, J. and M. van Dijk(2007) *Farming for Health: Green 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rlin, Germany: Dordrecht Springer. p. 13.
 44. Hine, R., J. Peacock, and J. Pretty(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In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and Centre for Environment and Society*. UK: University of Essex.
 45. Hoh, Y. K., J. Chae, and H. Lee(2022)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ived social value of community gardens as urban green spaces between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residents. *Journal of People Plants Environment* 25(1): 77-92.
 46. Johnson, G., K. Scholes, and R. Whittington(2005) *Exploring Corporate Strategy*. England: PrenticeHall, pp. 395-396.
 47. Kouwenhoven, V.(1993) *The Ris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 Model for the Manage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pp. 119-130.
 48. Kreutz, S., N. Dempsey, and A. C. Lindholst(2014) Resourcing place-keeping: fighting for funding. In N. Dempsey, H. Smith, M. Burton, eds., *Place-Keeping: Open Space Management in Practice*. Abingdon, UK: Routledge.
 49. Nam, J. and N. Dempsey(2018) Community food growing in parks? assessing the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in Sheffield, UK. *Sustainability* 10(8): 2881.
 50. Nam, J. and N. Dempsey(2019) Understanding stakeholder perceptions of acceptability and feasibility of formal and informal planting in sheffield's district parks. *Sustainability* 19(2): 360.
 51. Nam, J. and N. Dempsey(2020) Acceptability of income generation practice in 21st century urban park management: the case of city district park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64: 109948.
 52. Ownby, R. L., E. Crocco, A. Acevedo, V. John, and D. Loewenstein(2006)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 regression analysis. *Arch Gen Psychiatry* 63(5): 530-538.
 53. Ponnusamy, K(2013) Impact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agriculture: a review. *Indi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s* 83(8): 803-808.
 54. Roberts, D. J. and M. Siemiatycki(2015) Fostering meaningful partnership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novations in partnership design and process management to create value.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33(4): 780-793.
 55. Sanders, M. G.(2016) Community involvement in schools from concept to practice.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5(2): 161-180.
 56. Sempik, J., R. Hine, and D. Wilcox(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COST 866, Green Care in Agriculture*. UK: Loughborough University
 57. United Nations(2021) *Private Fundraising and Partnerships: Financial Report*. United Nations: New York, USA.
 58. <http://farmingforhealth.wordpress.com>
 59. <http://sofar.unipi.it>

Received : 21 November, 2022

Revised : 25 December, 2022 (1st)

Accepted : 27 December, 2022

4인익명 심사필